



평택 3·1독립만세운동 제100주년 기념식

| 100주년 조형물·기념비·선열추모비 제막식 |

2019년 3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
평택3·1운동기념광장(평택호관광단지 내)



주최_ 평택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관_ 평택3·1독립운동선양회
후원_ 평택시·평택시의회·평택문화원·광복회
민세안재흥기념사업회·원심창기념사업회·t-broad 기념방송

3·1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 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넓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십 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 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 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이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사역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같고 닳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 내는구나. 꿈꿨던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별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 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뚝뚝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식 순

- 개 회
- 국민의례 / 3·1운동 당시 평택에서 사용했던 손태극기를 대형태극기로 복제해 게양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평택3·1만세운동 희생자를 위한 묵념
- 제막식(100주년 조형물·기념비·선열추모비)
- 독립선언서 낭독 / 쉽고 바르게 읽는 3·1독립선언서
- 헌시 낭독 / 오늘을 사는 자 기억하리라
- 3·1절 기념극 공연 / 1919년 그 날의 함성
- 평택3·1운동 약사 보고
- 독립유공자 표창장 전수
- 기념사 / 평택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상임추진위원장
- 축사 / 평택시장, 평택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 유족 대표 인사
- 삼일절 노래 제창
- 만세삼창 / 광복회 평택지회장
- 평택3·1만세운동 재연 / 다함께
- 폐회

기 념 사

“시민이 하나가 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상임추진위원장 정 수 일
평택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오늘은 평택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평택에서는 벌써 몇 해 전부터 이미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해 왔고, 지난해부터는 33인의 공동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추진위원들과 함께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단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는 평택의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내빈과 평택시민 등 많은 분들이 그날의 숭고한 애국충정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상임추진위원장으로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평택시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이곳 평택호 현충탑 일대에 평택3·1운동기념광장을 조성하고, 기념조형물을 건립하는 등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100주년 기념행사의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평택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독립운동 기념비’와 ‘선열추모비’가 시민들의 십시일반 모금을 통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이번 모금에 함께 했으며 그 결과 큰 무리 없이 기념비와 추모비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해주신 많은 시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엄격하고 냉혹한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주년 기념사업과 같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과거를 되새겨보고 그것을 토대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끌어갈 미래에는 선조들이 겪었던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지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이유이며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평택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격렬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 평택에 사는 우리 후손들은 그런 자랑스러운 선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목숨으로 지키고자 했던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평택의 3·1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 백방으로 앞장서주신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한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지역의 만세운동을 기억하기 위해 십시일반 모금운동에 동참해주신 많은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의 의미가 오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택시민들이 하나가 되고, 전 국민이 화합하며, 나아가 남북통일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년 3월 9일

축 사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평택의 희망찬 미래 100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평택시장 정 장 선



오늘은 일제강점기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선열들께서 일본의 혹독한 탄압 앞에 당당하게 맞서 잃어버린 국권회복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친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분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긴 세월 인고의 나날을 보내셔야 했을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평택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평택의 3·1운동은 이웃 도시보다 빠른 3월 9일부터 시작되어 5월 1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광범위하고, 격렬하게 전개되었으며, 오직 국권회복이라는 민족적 열망으로 남녀노소, 신분계층, 지역과 종교를 초월하여 목숨을 걸고 분연히 독립의 큰 뜻을 함께 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평택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3·1운동 100주년에 맞춰 평택호 현충탑 일대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탑 건립과 기념광장을 조성하는 등 선양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평택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정수일 상임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33인의 공동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님들의 평택 3·1운동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려는 절실함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통해 애국선열들의 피와 땀, 정신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발전시켜, 희망찬 미래 100년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념식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9일

축 사

“100년 전 뜨거운 함성을 우리 다함께 이어갑시다”



평택시의회장 권영화

오늘은 일제강점기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선열들께서 일본의 혹독한 탄압 앞에 당당하게 맞서 잃어버린 국권회복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친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분들에게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긴 세월 인고의 나날을 보내셔야 했을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평택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평택의 3·1운동은 이웃 도시보다 빠른 3월 9일부터 시작되어 5월 10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광범위하고, 격렬하게 전개되었으며, 오직 국권회복이라는 민족적 열망으로 남녀노소, 신분계층, 지역과 종교를 초월하여 목숨을 걸고 분연히 독립의 큰 뜻을 함께 했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평택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3·1운동 100주년에 맞춰 평택호 현충탑 일대에 3·1운동 100주년 기념탑 건립과 기념광장을 조성하는 등 선양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평택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정수일 상임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33인의 공동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님들의 평택 3·1운동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려는 절실함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통해 애국선열들의 피와 땀, 정신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발전시켜, 희망찬 미래 100년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념식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9일

축 사

“평택의 3·1독립운동, 자부심을 가집시다”



국회의원 원 유 철

올해는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날의 함성을 재연하는 행사와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평택3·1독립만세운동 제100주년 기념식’ 개최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수일 상임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33인의 공동추진위원장님 그리고 평택3·1운동100주년기념사업회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100년 전 평택 전역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제의 잔혹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른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생각하면 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특히, 이번에 건립되는 ‘평택3·1운동 100주년 기념조형물‘그날의 함성’은 평택이 대표적인 3·1독립만세운동 항쟁지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평택에는 민세 안재홍 선생, 원심창 의사 등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이 있는 만큼 평택의 독립운동이 더욱 조명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평택3·1독립만세운동 제100주년 기념식’을 통해 평택 시민들이 3·1운동에서 선열들이 보여주신 숭고한 자기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평택의 독립운동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9일

축 사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 번 되새깁시다”



국회의원 유 의 동

오늘은 평택3·1독립만세운동이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온 생애를 바치신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 종교와 사상의 차이를 뛰어 넘어 오직 독립을 향한 열망과 애국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3·1정신은 반세기만에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꽃피우는 ‘기적의 역사’를 일구어 낸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평택의 3·1독립만세운동은 수원이남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을 시작하여 가장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펼쳐지며, 우리 평택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소중한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헌신 위에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듯이 다가올 미래 세대들이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저도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이 올곧게 계승되고 평택3·1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평택3·1독립만세운동제 100주년 기념식’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9일

축 사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평택문화원장 김 은 호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난의 길을 헤쳐오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긴 세월 인고의 나날을 보내셔야 했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섰던 이곳 계두봉에 3·1운동 100주년 조형물과 기념비, 선열추모비 제막식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지역보다 치열하게 3·1운동을 전개한 평택은 100년 전 오늘 이곳 현덕면 계두봉에서 시작되어 4월 1일 평택역 광장에 3,000여명이 모여 대규모 시위를 통해 일제의 무단통치에 항거했습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의 차이, 종교와 이념, 지역의 차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날의 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의 굳은 의지를 전 세계 각국에 알렸고, 다른 약소민족들의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은 민족 자결주의와 자주독립의 씨앗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신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존재한다는 사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평택3·1독립만세운동 제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사를 주관해주신 ‘평택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정수일 상임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빈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9일

현 시

오늘을 사는 자 기억하리라

임 봄/문학박사
(시인·문학평론가)

그것은 분노의 외침
평화를 갈구하던 흰 옷의 백성들이
태극기를 꺼내들고 들불처럼 일어나
조선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그것은

3월 9일 현덕면 계두봉과 옥녀봉에서 시작해
포승, 청북, 고덕, 서탄, 진위, 팽성, 평택 전역으로
무자비한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거대하고 거침없던 함성의 물결

광포하다고 기록된 평택의 만세운동은
자랑스러운 대한독립 만세운동의 뿌리여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어린 학생들까지
모두 거리로 나와 죽음으로 지키고자 했던

그것은 자유, 그것은 우리 대한의 완전한 평화
이곳에 발붙인 자, 어찌 그 피맺힌 함성을 기억하지 않으리
짓밟히고 죽어가면서도 끝내 목메어 외쳤던 만세소리와
그 피를 딛고 다시 태어난 내 고향 평택의 역사를

우리의 핏 속에 면면히 흐르는 저 뜨거운 햇불로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고
평화와 자유를 갈구하던 태극기의 외침으로
우리 다시 하나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

이 땅에서 오늘을 사는 자 기억하리라
이 땅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떠올리는 자 기억하리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도도하게 흐르던
내 고향 평택의 살아있는 정신을...

평택3·1운동 100주년 기념조형물

🌸 ‘그날의 함성’ 작품 해설 🌸



이 작품은 1919년 3월 9일 경기도 수원이남지역 최초의 3·1운동 장소라는 상징성을 가진 곳으로서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밭상지가 갖는 역사적 상징성을 제고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구상하였습니다.

서슬 퍼렇던 일제강점기, 당신들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조상들의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후손들에게 알리고자 당시의 상황을 담아 ‘평택3·1운동100주년 기념조형물’로 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이러한 조상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죽음으로 지켜내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후손들을 교육하고 일깨워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더욱 강건히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택3·1운동100주년기념조형물 ‘그날의 함성’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조상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어른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후손들에게 애국정신 함양과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2019년 3월 9일

시공사 나루

조형물 작가 민광식 참여작가 유재홍·이행균

석문 서예가 고당 박희명

평택3·1독립운동기념비



■ 취지문

평택에서는 1919년 3월 9일 현덕면 계두봉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평택 전역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수원 이남지역 최초의 평택3·1만세운동은 안성, 화성, 천안 등 남한의 3대 만세운동 항쟁지보다 앞서 일어났다.

전국에서도 가장 뜨거운 독립의지를 불태웠던 평택의 3·1만세운동은 일제가 ‘광포(狂暴)’하다는 표현으로 기록했을 만큼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평택3·1만세운동은 각계각층에서 대규모로 전개되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나라를 되찾으려는 민중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이 기념비는 시민들의 모금으로 세워졌으며, 후세들의 애국심 함양과 우리 평택, 나아가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바로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평택독립운동 선열추모비



■ 취지문

이 추모비는 1919년 평택에서 3·1독립만세운동을 벌이다 희생되신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내 고장 평택의 독립운동가들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그로 인해 대통령장을 비롯해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등 정부로부터 그 공을 인정받았다.

우리 후손들은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길이 되새겨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위한 평택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기 위해 시민들의 정성스러운 모금운동으로 이 선열추모비를 건립하여 선조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고자 한다.

2012~2014



평택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2015~2018

평택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평택의 독립운동가 정부 수훈자

○ 대통령장

안재홍(安在鴻·국내항일·고덕면)

○ 독립장

원심창(元心昌·중국방면·팽성읍)

이양섭(李陽燮·3·1운동·죽백동)

○ 애국장

박재훈(朴在勳·만주방면·포승읍)

신순우(申淳雨·중국방면·청북읍)

안구현(安九鉉·국내항일·오성면)

오성환(吳成煥·만주방면·안중읍)

오창선(吳昌善·국내항일·오성면)

이상신(李相信·3·1운동·죽백동)

이택화(李宅和·국내항일·청북읍)

정인옥(鄭寅玉·국내항일·진위면)

최항진(崔恒鎭·3·1운동·죽백동)

정세근(鄭世根·3·1운동·청북읍)

정우근(鄭友根·3·1운동·팽성읍)

○ 애족장

공재록(孔在祿·3·1운동·오성면)

김만진(金晩鎭·중국방면·진위군)

김봉학(金奉學·의병·팽성읍)

김상완(金商完·만주방면·포승읍)

김시연(金時然·3·1운동·죽백동)

김영오(金永五·중국방면·청북읍)

김용성(金容成·3·1운동·오성면)

김창섭(金昌燮·3·1운동·죽백동)

김하진(金夏鎭·중국방면·세교동)

남상환(南相煥·국내항일·서정동)

박옥동(朴玉童·3·1운동·죽백동)

박용업(朴龍業·3·1운동·죽백동)

박정식(朴正式·3·1운동·월곡동)

서완득(徐完得·3·1운동·죽백동)

안육만(安六萬·3·1운동·오성면)

유한중(柳漢宗·3·1운동·진위면)

이경춘(李慶春·학생운동·진위군)

이규선(李圭璇·3·1운동·진위면)

이규창(李奎昌·3·1운동·죽백동)

이덕순(李德順·3·1운동·지제동)

이병헌(李秉憲·3·1운동·현덕면)

이사필(李思弼·3·1운동·오성면)

이승익(李承益·3·1운동·모곡동)

이영우(李英雨·3·1운동·죽백동)

이종만(李鐘萬·3·1운동·월곡동)

정우진(鄭宇鎭·중국방면·진위군)

최구홍(崔九弘·3·1운동·진위면)

○ 건국포장

이익중(李翼鍾·3·1운동·고덕면)

이일영(李一榮·국내항일·팽성읍)

한영수(韓永洙·3·1운동·오성면)

○ 대통령표창

김봉희(金鳳熙·3·1운동·진위면)

목준상(睦俊相·3·1운동·합정동)

안희문(安喜文·3·1운동·오성면)

윤주식(尹周植·3·1운동·현덕면)

이두중(李斗鍾·국내항일·신대동)

정경순(鄭庚淳·3·1운동·진위면)

홍기성(洪奇成·3·1운동·청북읍)

삼일절 노래

정인보 작사

박태현 작곡

기 미 년 삼 월 일 일 정 오

터 지 자 밀 물 같 은 대 한 독 립 만 세

태 극 기 곳 곳 마 다 삼 천 만 이 하 나 로

이 날 은 우 리 의 의 요 생 명 이 요

교 훈 이 다 한 강 물 다 시 흐 르 고

백 두 산 높 았 다 선 열 하 이 나 라 를

보 소 서 동 포 야 이 날 을

길 이 빛 내 자

평택3·1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조형물·기념비·선열추모비 제막을
축하합니다

- 용인이씨 참의공(평택)파 종회원 일동 -



평택3.1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조형물·기념비·선열추모비 제막을 축하합니다



- 함평이시 양산.대교공파 종친회원 일동 -



국토보상 행정사 사무소

피수용자 이의신청(행정심판) 대행 전문
토지·지장물·영업보상 사전 상담 / 보상금 증액 상담

주민대책위원회(포승지구, 브레인씨티 등)
자문 및 보상사건 수임 다수

“사전 상담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010-4779-6244, 1577-6191(예약/현지 상담 가능)

www.law-sos.co.kr

이진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이진욱

- 수용 전문 세무사(10년 이상)
- 양도/상속/증여 전문(수용 이전 사전조치도 가능)
- 종중 자문 전문(브레인씨티 등 다수 수임 진행 중)
- 국토보상 행정사 사무소 전담 고문 세무사
- 현)한국세무사회(업무정화위원, 국제협력위원)

H.P 010-9418-6244 / Fax. 02-574-6199

CASA³³⁵³



**화덕피자 / 파스타 / 스테이크를 전문으로 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까사는 이탈리아어로 집이라는 뜻이며
3353은 335-3번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OPEN 11:30 - CLOSE 22:00

LAST ORDER 20:40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대반1길 21-29 (금곡리335-3) / ☎ 031) 681-0075





현대토건&조경주식회사

T 031.681.5573

F 031.683.5573

LANDSCAPE ARCHITECTURE

섬세한 기술과 완벽한 디테일을 통한 품격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깊은 신뢰, 아름다운 환경으로 보답드립니다.

· 전문건설업보유업종

나무병원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정성스러운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전문시공가가 공사의 책임 시공을 담당.
수목별 생육환경을 고려한 식재 및 관리.
조화롭고 감각적인 식재패턴.
유지관리 전문가 1:1 관리
연간 / 분기별 / 부분 유지관리
사내 농장 다수 보유

이 상품은
해양수산부
「바다가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판매하는
공익상품입니다.

경기남부수협해양수산부
주최기간: 2019. 03. 21 ~ 2019. 03. 31

바다야! 고맙다 Sh적금

바다사랑도 실천하고!
우대 금리혜택도 함께 받으세요!

연명잔 순증액의 0.2%를 전액 중앙회 부담으로 기금 출연

기본금리
3.1%

+

우대금리
최고 **0.9%**

=

최고금리
4.0%
(3년)



Sea & Love

당신의 적금에 바다사랑을 가득 담아주세요.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바다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Sh

경기남부수협

※ 이 상품은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예금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에 따라 과세됩니다.
※ 이 상품은 2019. 03. 21 ~ 2019. 03. 31까지 유효합니다.

031 - 220 - 7500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1. 사 업 명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3.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현덕면 도대리, 운정리, 화양리 일원
4. 사업면적 : 2,791,195㎡
5. 시행방식 : 환지방식(평가식)
6. 연 락 처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031)681-8972, 681-8977
FAX : 031)681-8997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최선철